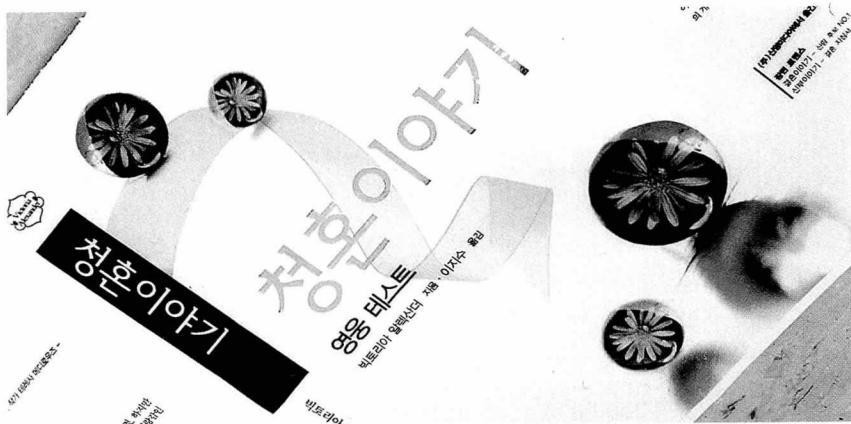


# 약간의 효과로 고급스럽고



◆ 두원금박인쇄에서 제작한 금박인쇄물들

일반 오프셋인쇄에 약간의 효과를 더 주면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기법 중의 하나로 금박인쇄가 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색이나 은색으로 인쇄된 제품들은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나타내 줌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 특히 패키지 분야에서는 내용물을 접하기 전에 패키지를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박인쇄제품은 소비자의 눈을 먼저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 패키지나 라벨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초대장이나 연하장, 카드 같은 경우에도 고급스러움이 한껏 드러나게 돼 받는 이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금박은 금, 은 및 착색박을 얇게 퍼서 철판이나 알루미늄판으로 압과 열을 가하여 인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각종 컬러 박이 나와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는 색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먹박도 나와 있어 검은색의 광택효과도 낼 수 있다.

이 밖에도 무지개박, 홀로그램박을 이용하는 특수박들도 선을 보여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열과 압력으로 인쇄되는 금박인쇄는 각종 종이류, 플라스틱 필름류 및 시트류, 옷감 등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금박 원단은 별도로 제작된다.

금박인쇄공정은 우선 상품화된 금박 롤(스탬핑호일)을 구입하고, 디자인된 글씨

# 화려하게

나 그림을 필름으로 만든 후 동판을 제작한다. 동판은 예전에는 연판을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주로 신주로 만들며, 동판제작 전에 인쇄물의 양각 및 음각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미리 정해서 동판제작을 한다. 만들어진 동판은 인쇄기에 부착돼 열이 가해지며, 가열된 동판은 금박 롤을 눌러 종이류나 플라스틱류에 직접 인쇄를 하게 된다.

금박인쇄는 주로 라벨, 명함, 펜시, 카드 및 연하장, 초대장, 패키지, 상장, 서적 표지, 심지어는 수첩 커버 등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용도에 맞게 인쇄가 가능하다. 금박기의 형식에는 센서로 자동 인식하여 판을 찍어누르면서 금박이 되는 Up-Down 형식, 인쇄물을 감은 원통을 금박 판이 압혀있는 판위에 굴려서



금박이 되는 실린더 형식, 작은 사이즈를 주로 하며 도무송이나 재단을 먼저 한 후에 하는 플라톤 형식 등이 있다.

참고로 한복 등에 이용되는 옷감용은 금박 이면에 전사가 돼 있어 낮은 온도에서도 접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원하는 곳에 금박인쇄를 할 수 있다.

최근 금박인쇄는 자동 및 반자동,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가 새로 나와 제품이 상당히 다양화되었으며, 시간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 디자이너들이 금박인쇄로 표현하는 것이 쉬워졌다.

〈윤재호 부장〉

속이인쇄 > [금박]인쇄 > 생활속이인쇄 > [금박]인쇄 > 생활속이인쇄 > [금박]인쇄 > 생활속이인쇄 > [금박]인쇄 > 생활속이인쇄

## 금박인쇄과정

